

글 쓰는 전문 직업인 조선의 사관

— 사관의 어원·역할 —

1. 잔칫집에도 가고, 상가에도 갔던 사관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의 밖에 있었다. 그러나 왕실의 업무와 연관되는 중요한 관청은 궁궐 안에 두었다. 춘추관의 경우, 임금의 모든 언행을 기록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안에 있었다. 현재 전해지는 궁궐 내 각 관청의 배치도를 보면, 예문관과 승정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춘추관의 임무와 역할이 군주를 비롯한 모든 관료들의 행동거지를 적어야 했던 만큼 궁궐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소속 관원들의 품계가 비록 7품 이하의 말단이었지만, 수행했던 일은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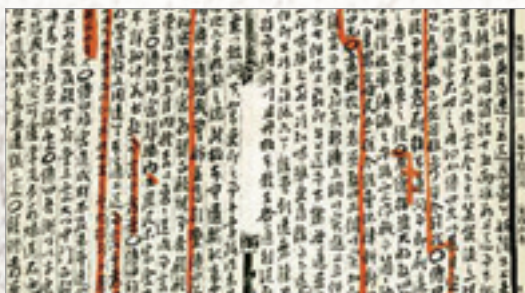
경연과 정치가 논의되는 모든 곳, 즉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여 사실을 기록하는 기본적인 임무 외에, 왕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세징수의 잘잘못을 파악하고, 이의 시정책과 문제점을 살펴 조사하였다. 승정원의 주서와 함께 동·서빙고에 가서 얼음 저장 여부와 부정 여부를 살피기

도 하였다. 옥에 구속된 죄수를 조사하기도 하였고, 죄인의 심문 시 동참하기도 하였다. 대신이 사직서를 올릴 경우, 왕을 대신하여 사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달 시키기도 하였으며, 군주를 대신하여 고위 관료의 문병 혹은 상가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성균관 및 4학에 가서 유생의 출석부를 가져다가 수업 여부를 헤아리기도 하였다. 범죄 사건의 처리 상황 검열과 종묘에 짐승을 올리는 제사의 주재, 빈민구휼소에 가서 구휼 행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 조사와 의정부 찬성의 임명 시 후보자를 삼정승에게 물어오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관은 사초와 시정기의 작성, 그리고 실록의 편찬 등과 관련된 역사 편찬 활동 이외에, 군주를 대신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였다. 왕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수행하였던 임무가 군주의 통치 행위 및 유교 정치 이념의 구현 여부를 확인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관되었던 일이었다. 더욱이 공론의 형성에 기여하였던 점에서 볼 때, 언론정치의 전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담명 사초〉



〈광해군일기-태백산본〉

2. 서울과 지방에서 활동한 사관들

예문관에 소속되었던 8명의 전임 사관만으로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에 상당수의 겸직 사관을 두어 광범한 기록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태조 4년 1월 “(정도전에게) 정승의 자리에 앉히고, 또 국사를 편찬하는 관직까지 겸하게 하였더니,” “(정충에게) 국정을 결정하는 의정부에 올리고 사필을 잡는 관원을 겸하게 하였더니”라는 기사는 역사 사실의 기록을 위하여 전임 사관 외에, 겸임 사관(겸춘추)을 광범하게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왕조의 관직에는 동일한 명칭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춘추관을 비롯하여 경연,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의 최고직은 모두 영사

로 동일하며, 지사와 동지사는 경연과 성균관의 관직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들 관직은 모두 겸직이었다. 따라서 중앙 정치의 최고 핵심 관직인 영사, 감사, 지사, 동지사, 대제학, 제학, 세자사, 세자이사, 세자부, 세자빈객 등 2품 이상의 36자리는 의정부의 삼정승(3명)과 찬성(2명), 참찬(2명), 육조의 판서(6명)와 참찬(6명) 등 19명이 겸임하였다.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수 인사들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던 겸직제는, 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연관성과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활용, 국가의 예산 절감 효과 등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광범한 겸직제의 운영은 정국의 흐름뿐만 아니라, 권력의 향배와도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었다. 영사부터 수찬관까지 춘추관의 당상관도 19명의 인사들이 겸임하였다. 이는 춘추관이 정치권력의 동향과 민감했음을 반영한다. 조선중기 이후 춘추관의 당상관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실록의 편찬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사례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편수관 이하 기사관까지 실무 인사들은 중앙 행정 관서에 소속된 관리들이 겸임하였다. 의정부, 육조, 홍문관, 승정원, 승문원, 사헌부, 사간원, 예문관, 시강원, 종부시 등 중앙의 핵심 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에게 겸임시킨 것은 소속 관청의 시행사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시정기로 편찬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춘추관은 역사 편찬 기관, 학술 기관 및 정치 기관으로서의 성향을 두루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 물론, 지방에도 사관의 임무를 수행했던 겸임사관을 두었다. 이를 외사(外史)라고 한다. 즉 외사란 지방 행정 단위에서 사관의 임무를 겸하면서, 지방에서 발생한 갖가지의 사실과 수령들의 시비득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던 관료를 말한다.

고려왕조에서도 현종 9년(1018) 지방 제도가 정비되면서, 3경과 4도호부 8목에 사록(司錄)을 배치하였다. 이들로 하여금 수령을 보좌하게 하고, 속읍을 순찰하며 향리 감독 등의 임무와 지방 사실의 정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중종 10년(1515) 6월 삼정승을 비롯한 대신들이, '선대에 없던 일이지는 하지만 도로나 수령 중에 적당한 자에게 사관직을 겸임시켜 선악을 기록하게 한다면, 수령들이 공론을 두려워하여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체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외사는 단순히 지방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관직이 아니다.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령의 탐학을 견제하고, 각 지방의 역사와 문화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는 지배층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 역사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들의 지방 행정 운영에 대한 견제 역할, 즉 지방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언론활동의 하나였던 것이다.



〈오대산사고-북원 전〉



〈오대산사고-현재 모습〉

3. 사관 활동의 의미

일반적으로 역사의식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당대 문제를 역사적 과제로 의식하고자 하는 현재적 인식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에서 중앙과 지방에 사관을 설치·운영한 것은, 그들이 작성한 문서가 곧 당대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즉 역사의식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즉 조선시대 사관의 설치와 운영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던 지배층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사의식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지방의 시·군·읍·면에는 그 지방의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계'라는 자리가 있고, 또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은 자리 이동 없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외사와 동일하게 비교될 수는 없지만, 자기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통된다고 본다.

"군주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관뿐이다(君主所畏 史而已)."라는 연산군의 고백을 보면, 사관의 기사 활동은 다른 어떤 기관의 언론활동 이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